월/요/광/장

이 원 규

느림의 미학과 지리산학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든 '지리산학교'가 어느새 7기 종강을 하고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지리산학교를 벤치마킹한 한라산학교가 2년 전에 만들어졌고, 경남 울주군에선 백무산 시인과 김수환씨 등이 '소호마을문화학교'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최근 지리산권의 '구례 지리산사랑학교'와 '지리산학교 남원·함양'이 개교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광주의 무등산학교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리산학교를 모태로 한 파급효과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형태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지리산학교는 여전히 실험 중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성과에 비해 실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보니 다소 부끄럽고 낯간지러운 것도 사실이다. 박남준 시인과 사진작가 이창수씨와 내가 차를 마시다 문득 제안하고 합의한 것이 큰 사고(?)를 친 것이다. 나의 아내이자 지리산학교 교무처장으로 일한 '고알피엠 여사' 신희지씨가 부산의 '사진집단 일우'의 김홍희 작가에게 사진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한 것이 학교 탄생의 단초가 됐다.

"부산까지 가서 사진을 배운다고? 여기 지리산엔 사진작가가 없나, 시인이 없나?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니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자. 우리도 예술대학 하나 만들자. 총장은 도대체 느려터진 박남준 형이 하고…"

사실 이렇게 우습게 시작된 지리산학교가 지금은 문화예술 각 분야의 강사 12명과 학생이 100여명 정도인 명실상부한 학교가 되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듯하지만 이미 지리산엔 귀농학교와 대안학교, 그리고 녹색대학 등의 실험이 10여년 정도 이어지는 등 '지리산의 때가 무르익다보니' 밑그림도 쉽게 그려졌다.

돈 없이 만들 것, 현실 생활에 활용되는 생활밀착형 예술을 가르칠 것, 교실은 각자의 공간을 활용할 것, 등록비는 최소화할 것, 강사료는 재능 기부에 부응하는 정도만 받을 것, 장소는 일단 하동군 악양면이라는 면단위를 중심으로 만들되 지리산 전체가 교실일 것, 학생 모집은 지리산권 주민을 중심으로 하되 인접도시까지 포함할 것, 학벌이나 연령 제한은 두지 않을 것 등이었다.

1주일에 한번 강의하되 학생들과 수업시간을 조율하고, 학생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 한 반에 10명 이상을 뽑지 않기로 했으며, 한 달에 한번 전체 모임의 날은 물물교환 장터와 공개특강을 열어 학생과 강사,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학교의 모든 운영은 강사들과 학생대표의 모임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전통적 화백회의 수준으로 되도록이면 만장일치를 보기로 했다.

지리산학교는 애초 합의대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운영위에서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것들은 일단 보류해왔다. 언제나 천천히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니 뭐 그리 급할 게 있겠는가. 그리고 지리산학교의 특장 중 하나는 누구나 선생이자 제자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시를 가르치는 강사는 천연염색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학생들 중에서 농사 등의 전문가는 제자이자 곧 강사들의 선생이 되는 것이다. 수직적 구조는 자연스레 무너지고 수평적 구조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 제안된 '지리산문화예술대학'은 '지리산학교'로 소박하게 바뀌었고, 총장은 교장으로, 교장은 다시 교사대표로 자연스럽게 반권위적으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교사대표는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맡는 상징성일 뿐 아무런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게 되었다. 비로소 민주적인 원탁회의가 완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 또한 최근 교사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사대표가 훨씬 더 명예로운 일이며 좀 더 느리더라도 공평무사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러나 최근 지리산학교는 내홍을 겪었다. 모든 결정권을 가진 운영회의는 때로 지리산학교라는 대의와 공통분모를 지향하기보다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등 밑바닥을 치기도 했다. 모두들 알게 모르게 독배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아플 때는 아파야 한다. 안 아픈 척 하는 것도 거짓이다. '앉은 자리가 곧 학교'이자 '움직이는 학교'의 훈풍이 전국으로 번지는 시점에서 '첫마음'을 되살리며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 삼는다면 베이스캠프로서의 '쓴 약'이 될 것이다.

이제 모두 독배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너무나 '아름다운' 학교로 거듭날 때가 되었다. 선의의 경쟁상대인 한라산학교, 울주군 소호마을문화학교, 지리산권의 또 다른 지리산학교와 더불어 축제를 열거나 서로 수학여행 가는 날들이 눈앞에 선하다. 〈시인·지리산학교 대표교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오(Oh), 판사(判事)'

최 철 민

'오, 수정'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한 여자와 두 남자 사이의 묘한 관계를 그린 홍상수 감독의 작품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이은주씨가 출연한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처녀인 한 여자, 그녀와 연인관계에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 한 여자를 소개받은 또 다른 남자, 이들 3명의 삼각관계에 관한 묘사가 이 작품의 큰 줄기인데, 이 작품은 한 여자와 두 남자가 동일한 상황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쩌면 감독은 '사람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판사입니다. 운 좋게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도 되어 여러 재판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판사는 말 그대로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하여야 할 대상의 거의 대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대립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과거 기억이 드러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러난 과거 기억들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 중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야 하고 또 서로 모순되는 기억들이 대립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혼재판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기에 과거의 일에 대해 기억만 있을 뿐 속칭 물증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갈라서면 남'이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여 주장하게 됩니다. 다른 재판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서로 모순되는 기억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모순되는 기억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판사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판사들도 사람이기에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기억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고, 또 재판의 특성상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정년퇴임하신 선배 판사님께서 하신 '재판 당사자들 중 현명한 재판이었다고 칭찬할 사람은 50%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당사자들에게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과거는 숟가락과 비슷하다. 원고는 숟가락의 오목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는 그 반대편인 볼록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 모두 숟가락의 일부이고, 오목한 부분을 보든 볼록한 부분을 보든 어느 경우나 모두 얼굴이 틀어져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로서 계속 생활해 가면서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 모두 숟가락의 일부라는 점은 명백한데, 오히려 나 자신이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 모두 사물을 왜곡되게 보여준다는 점에만 몰입한 채 숟가락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판사들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온 정신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판사들을 향해 '오(Oh)'라는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도 해 봅니다.

모순되는 기억들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숟가락 전체를 보지 못할까봐 남모를 고민을 하며, 50%의 지지도 받지 못하지만 100%의 지지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국 법원의 모든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 고

김치, 젓갈, 간장, 된장의 잠재력

김 형 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개발하여 먹어 왔다. 그중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익한 균으로 맛을 숙성시킨 발효음식들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는 데는 날로 먹는 것, 익혀서 먹는 것, 숙성시켜 먹는 것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날로 먹는 것과 익혀 먹는 것 모두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곰삭아 깊은맛을 내는 발효음식의 독특한 향미를 능가하기는 어렵다.

발효음식은 김치, 젓갈,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장아찌, 막걸리, 식초 등을 들 수 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김치는 애초 채소재배가 어려운 겨울철 안전한 저장을 위해 고안되었다. 젓갈 역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다량으로 잡힌 생선을 계절에 구애 없이 사계절 내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의 원천으로서 우리나라 음식의 맛을 이끌어 온 콩은 장류뿐만 아니라 두부, 두유, 강정, 다식, 엿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발전하였다.

전라도식 김치 즉 남도김치는 특유의 깊은 풍미와 휘감치는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지역 김치는 뛰어난 맛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대열에서는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김치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김치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주김치타운이 설립되었다. 김치타운은 이제 초기운영단계로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약간의 시일과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김치타운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피나는 노력과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김치타운을 구심체로 하여 권역에 김치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김치산업 집적화단지의 건설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의 획일적인 김치로는 굳건히 구축된 김치시장의 아성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특성화된 맞춤형 사업전략이 요구된다. 즉 최상의 원부재료를 사용하는 고품질의 명품김치, 특정한 성분을 강화시킨 기능성 김치, 새로운 재료를 발굴하고 융합시킨 신종김치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콩 발효식품사업에 착수하여 성공한 바 있듯이, 콩 산업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분야다. 콩으로 제조한 메주를 비롯한 된장, 청국장 등의 상품화는 물론 친환경 두부와 콩나물재배도 병행할 수 있다. 콩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규모의 콩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의 확보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위생적인 제조 및 저장·판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소득의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남도지역이 우수한 전통식품 자원을 바탕으로 민관이 합심,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광주김치 공동브랜드 '감칠배기'가 하루속히 많은 국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 김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해 본다.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농촌 학생 위한 저렴한 대학 기숙사 늘려야

올해 초 조카가 대학에 들어갔다. 교육 환경이 안 좋은 농촌에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한 조카가 대견스러워 격려 차원에서 내가 첫 입학금을 내주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농촌 학생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생활비다. 그나마 조카가 들어간 대학에는 기숙사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요즘은 기숙사조차도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다.

조카가 들어간 대학의 기숙사는 1인실은 월 50여만원이고, 2인실은 월 40만원대였다. 이 정도 금액이면 대학가 근처 원룸이나 하숙비와 맞먹는 금액이다.

학교 측에 무슨 기숙사가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더니 요즘 기름값, 건축비 등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기숙사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때문에 농촌 가정에서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희망은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히 자라주기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 농촌에서 뼈빠지게 고생하는 당신과 달리 자녀들은 도시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농촌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서 기숙사를 싸게 제공해 농촌 자녀들이 학비 부담을 덜 갖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도시로 나오지 않고 농촌을 지켜줄 것이다. ▲윤용숙·광주시 서구 벽진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지역 재해 위험시설 안전대책 시급하다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낸 중부지방의 '물 폭탄'이 광주·전남에 쏟아졌더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자연재해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펜션과 민박, 전원주택 등 각종 시설이 지역 내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에는 인공 절개지와 자연 구릉지 1264곳 가운데 48곳이 붕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당장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없지만 대부분의 인공 절개지와 자연 구릉지 인근에 아파트와 주택 등이 밀집돼 있어 예기치 않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 때에는 대량의 인명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펜션과 민박 시설 등은 자연 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 규정 자체가 없어 기본적인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시설이 산 절개면이나 계곡, 또는 강 인근 등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나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중부지방을 강타한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는 100년 만의 강수량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다. 광주·전남도 언제 어디서나 이 같은 화가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전남도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새롭게 짜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방재대책으로는 대형사고나 참사를 막지 못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점검부터 실시해야 한다. 예산이나 인력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전시성 난개발이 중부지방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맞는 방재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서둘러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먹구구' F1 대회 운영, 혈세로 막을 건가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F1(포뮬러원) 대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남도가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행위를 해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2016년까지 F1 대회를 치를 경우 1조100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데다, 운영 손실액만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대회를 계속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F1 대회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경주장 건설 비용 일부와 중계권료 등을 누락시키고, F1 대회 운영사인 FOA의 수익을 전남도 수익에 포함시키는 등 수익을 과도하게 산출,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왜곡시켰다고 한다.

실제 경주장 건설 공사비는 당초 예상액 2294억 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5073억 원에 달했고, 2016년까지 1112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검토된 운영 수익은 4855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F1 대회가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하나 과욕을 넘어 사업 자체의 수익 여부와 비용 등을 왜곡시킨 불법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더러 관련자에 대해선 엄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적자는 결국 도민의 혈세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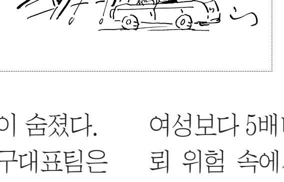
전남도는 무엇보다 F1 대회의 고비용 구조 개선과 국고지원 확보 등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대회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F1 운영사인 FOA와 개최권료 등에 대해 재협상을 벌여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마케팅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F1 대회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격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 이제 더 이상 '뒷짐'을 져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F1에 관심을 표명하고, 김황식 총리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우리는 주목한다.

無等鼓

벼락

비가 내릴 때면 하늘 저편에서 번쩍거리는 섬광과 함께 굉음을 울리며 구름 사이에 전기가 순간적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번개다. 벼락은 이 가운데 땅으로 내려꽂히는 것을 가리키며 낙뢰(落雷)라고도 한다. 구름과 대지 사이에 일어나는 방전현상으로, 소나기구름인 적란운(積亂雲)에서 주로 발생한다.



올 여름 세계 각국에서는 벼락으로 인한 사고가 유난히 잦다. 지난 6월 28일 나이지리아 곰베주와 요베주의 목초지에 강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15명이 벼락에 맞아 숨졌다. 우간다에서도 같은 날 고지대 시골 학교에 벼락이 떨어져 학생과 교사 23명이 숨졌다.

비슷한 시기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은 독일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본선 조별리그를 앞두고 훈련을 하다 선수 5명이 벼락에 맞아 병원에 입원했으나 1차전인 미국과의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서 고속열차가 추돌해 39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사고 직후 중국 정부는 벼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발표했다가, 신호설비 및 관제시스템 결함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속철은 인공위성, 항공모함 등과 함께 중국 부활의 상징이었던 만큼 굴기(우뚝 일어섬)를 기치로 내세웠던 지도부는 벼락 탓을 하려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 18명이었던 낙뢰 사상자 수가 지난해에는 29명으로 늘었다. 연간 100만회 이상 발생하는 낙뢰는 절반 이상이 8월에 집중된다. 특히 남성은 벼락에 맞을 확률이 여성보다 5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다. 낙뢰 위험 속에서도 야외에 나가 스포츠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 탓이다.

벼락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야외활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낙뢰특보제 도입도 서둘러야겠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